

## 2020년 8월 2일 “창세기의 사람들(4) 아담과 노아”(창 1:27-28; 9:1-3)

아담과 노아는 창조와 구원에 관한 진리를 가르쳐주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심판을 경험한 두 사람에게 주신 언약과 함께 노아가 제 2의 아담이라고 불리는 측면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 [1] 창조언약과 노아의 언약

**창 1:27** ‘사람을 당신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외형을 닮게 만드셨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성품과 계획과 목적을 담고 드러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속성을 표현하고, 사람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고대사회에서는 어떤 종족이든 최고 권세자만이 신의 형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신탁을 받은 자기 말에 순종해야 하며, 듣지 않으면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위협이 그들의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저자 모세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신탁을 받은 존재라고 선언합니다. 창조주의 성품과 행하시는 목적을 드러내는 소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입니다(**28 절**). 이것은 보편적이고 근본적인 생명의 힘을 말합니다. 복이 있어야만 소명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 복을 받아 하라고 하시는 것은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입니다. 여기서 인간의 기본적 역할과 기능이 나타납니다. 먼저 낳아야 합니다. 특히 인류 초창기에 수의 증가가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노아에게 주신 말씀(**9 장**)을 보면, 1:28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노아와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번성-충만하라고 하십니다. 다른 점은, 짐승, 새, 물고기가 사람을 무서워할 거라고 합니다. 또 하나 다른 것이 있는데, 노아 언약에는 다스리라, 정복하라는 말 대신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말긴다-새번역)’라고 하십니다. 3 절 ‘주노라’라는 말도 원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이 원어의 뜻은 무엇을 어떤 사람의 손에 주다, 즉 하나님께서 사람의 보호 아래 맡김을 뜻합니다. 통치할 수 있는 신의 권세와 같은 정치 권력을 넘겨줄 때도 표현됩니다. 말하자면 피조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 [2] 노아와 아담의 심판의 경험

<노아> 노아와 가족들은 홍수 심판의 한 복판에서 피조계가 처참하게 파멸되는 무서운 과정을 경험했습니다. 이런 고통의 현장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심판 전에 노아가 살 때에 세상이 많이 타락했지만 이렇게 파멸될 것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의 순방향이 유지되고 진행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의 역방향으로 치달아 일어나는 파멸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를 비로소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태초부터 권세를 주셔서 피조물을 돌보게 하심은 큰 기쁨의 축복이 됨을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 새롭게 회복한 축복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서 내가 부르심을 받은 가정, 직장, 사회, 교회를 돌보고 섬기는 것이 감사와 경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한 사람입니다.

<아담> 아담 또한 질서와 조화를 이루어가는 에덴에서 땅을 가꾸고 지키고 동물들과 교통하며 살다가,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 가져온 내면의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삶의 파열(분리)로 이끄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움으로 힘들었으면 숨을 수 없는 에덴에서 숨기를 원했고, 주님과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아내는 사악한 뱀의 도구로 보이고, 하나님 음성은 듣고 싶지 않은 마음의 상태,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말씀 앞으로 부르십니다(**창 3 장**). 그리고 말씀으로 심령이 회복되었을 때 아내를 '산자(생명 있는 자)의 어머니'라 부를 수 있었습니다(**3:20**).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순방향으로 이끄는 일인 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불순종 후에 깨어진 관계, 즉 모든 분리의 아픔을 경험했지만 말씀으로 회복한 후에 일어난 변화입니다.

사람이 타락의 일로를 계속 걸어갔지만, 하나님은 태초에 주셨던 언약의 말씀을 노아에게 다시 주심으로써 처음 세우셨던 의지와 목적대로 창조 세계를 이끌고 가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서 노아는 제 2의 아담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요즘 일어나고 있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경제와 사회가 잘 돌아가지 않고, 집회의 제약이 높아진 가운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전에 허락되었던 만남과 교제는 얼마나 하나님의 창조의 순방향적인 축복이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의 내면과 같은 부끄럽고, 피하고 싶은 마음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잘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홍수 심판에 버금갈 정도 온 세계가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담이 경험한 분리로 인한 내면의 부정적 상태, 노아가 경험한 처참했던 홍수사건, 이것은 어떤 형태로든 우리에게도 경험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아담과 노아처럼 인간의 소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 앞에 새롭게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창조의 의미를 회복하는 구원받은 성도의 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 <생각해 봅시다>

1. 아담과 노아가 주님께 들은 창조와 구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2. 구원받은 사람이 발견하는 축복은 무엇입니까? 아담과 노아의 예를 통해 생각해 보세요(위의 글 참고)